



수출 플러스 지원단, 중앙·지방협력·해외인증 획득 및 금융 지원 강화로 경북기업 수출길 잇는다

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 및 해외인증·수출금융 설명회 개최

- 수출 플러스 지원단과 경상북도 간 상시 협력채널을 개설하여 인증, 바이어 발굴 등 지역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애로를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해결
- 정책금융기관들의 찾아가는 수출금융 프로그램 설명회에 이어 산업부 해외인증 지원단과 함께하는 섬유·패션 분야 해외기술규제 및 인증 설명회 개최

수출 플러스 지원단(단장: 재정경제부 제1차관)은 9월 29일(화),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.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이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개설하여, 지역 수출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애로해소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< 수출 플러스 지원단 - 경상북도 간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 개요 >

- 일시 · 장소: '26. 9. 29(화) 10:20~11:30, 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회의 참석자: 지원단 부단장,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,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 경북지원 본부, 경상북도경제진흥원, 경북통상, 경북수출기업협회
- 주 논의사항: 경상북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단 · 경북도 간 협업사항 발굴 및 향후 협력방향 논의

배정훈 부단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복잡 ·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, 일선 수출 현장의 수요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해 경상북도청을 비롯한 지방정부들과의 협력 채널을 지속 개설 ·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이경곤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, 에너지 불안,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도내 기업들의 수출 상황이 쉽지 않다며 그 어느 때보다 중앙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업들의 수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.

이번 회의에서는 경북수출기업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, 해외 바이어 발굴, 해외인증·통관·물류 등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애로가 제기되었으며, 지원단은 코트라, 산업부 인증지원단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 운영 중인 지역별 인증제도 설명회 및 실시간 애로접수 창구(www.expert119.go.kr) 등을 안내하였다.

특히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 회의 다음날인 9.30일에는 이러한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대구 무역회관에서 섬유·패션 분야에 대한 해외기술규제 및 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여, 지역 수출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.

아울러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9.29일 14:00에 대구무역회관에서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정책금융기관들과 수출금융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설명회는 수출금융에 대한 정보획득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금리우대 대출 및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 등 수출 기업들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. 또한, 기관별로 별도의 상담부스를 개설하여 1: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31개사가 참석을 신청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.

배정훈 부단장은 인증·금융 등이 수출지원에 중요한 요소이나, 지역의 수출기업들은 정보획득과 기관들을 접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, 연중 지역별 수출금융 프로그램 설명회와 해외기술규제 및 인증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.

재정경제부	수출 플러스 지원단 총괄기획팀	책임자	팀장	손정혁 (02-6000-5783)
		담당자	주무관	한수원 (hanscom78@korea.kr)
		담당자	차장(수은)	김경민 (kkmim@koreaexim.go.kr)
	수출 플러스 지원단 신산업진출팀	책임자	팀장	김진석 (02-6000-5793)
		담당자	사무관	박은영 (supia1127@korea.kr)

